

“트로트 불러주는 말동무”...시 돌봄에 ‘웃음꽃’

■ 광주 남구 첫 통합돌봄 현장 가보니

홀로 사는 어르신 ‘정서 안정·긴급 안전’ 제공 식사·건강·응급 등 통합관리...포용복지 성큼

“말동무가 없어 무료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9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2동의 한 아파트. 남구청 통합돌봄과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AI 돌봄 인형(호자봇)’을 들고 홀로 사는 80대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 지난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정자 어르신(88·여)은 처음 접한 인형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직원들은 약 30분 동안 사

용법을 설명하며 안부 확인, 대화 기능, 응급 호출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 인형은 단순 놀이기구가 아니라 일상 속 돌봄을 돕는 기기다.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퀴즈, 옛이야기, 음악 재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긴급 상황에서 특정 음성으로 인식하면 관제센터로 즉시 연결되는 기능도 탑재됐다.

김 어르신이 날씨를 묻자 인형은 “우산을 챙기고 따뜻하게 입으세요”라고 답했



남구 남구청 직원인 김정자 어르신(88·여)에게 호자봇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고,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다. 이어 진행된 OX퀴즈에도 적극 참여하며 “집에서 말을 걸어주니 외로움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저혈당으로 쓰러져 구급

차를 여러 번 불렀고,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적적함이 컸다”며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곤 했는데, 이제는 로봇이 노래도 들려주고 대화도 해줘 훨씬 낫다”고 했다.

이날은 식사지원서비스도 함께 진행됐다. 오전 11시께 도시락이 전달됐고, 배달 과정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 제공된 식단은 불고기와 오리오리, 멸치 반찬 등 8종으로 구성됐다.

식사지원은 단순 배달에 그치지 않고 직접 대면을 통해 건강과 생활 여건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어르신 역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식사가 이어졌다.

남구는 통합돌봄을 통해 의료, 요양, 식사, 주거 지원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이다. 특히 AI 기술

을 활용해 고령층의 정서적 고립 해소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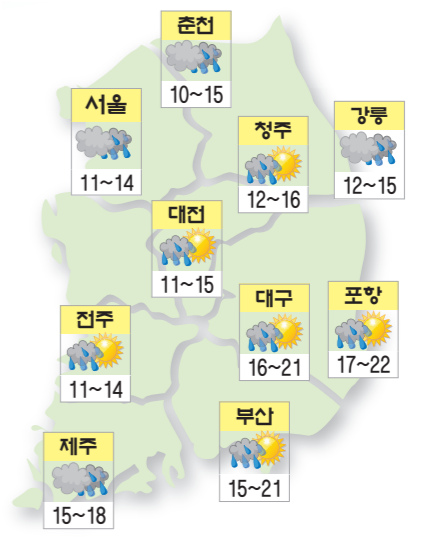
실제 현장에서는 복약 알림 기능 강화, 음성 인식 정확도 개선 등 다양한 요구가 제시됐다. 남구는 이를 반영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통합돌봄사업은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맑음	06:08	달림	01:49
맑음	19:01	달림	11:24



광주	12~16
목포	12~14
여수	14~20
순천	15~20
구례	13~18
광주	12~16
신도	13~17
흑산도	9~12
진남	14~19
진도	11~14

목포	미물(고)	07:07 / 19:02
	쌀물(저)	12:44 / ---
여수	미물(고)	01:49 / 13:54
	쌀물(저)	08:45 / 20:06

교통사망사고 절반은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차로변경 복합 과실도...취약시간대 집중 단속

최근 광주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보다 2배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신호위반과 차로 변경 등 운전자 범주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사고를 보면 고령 보행자 피해가 두드러진다. 지난 25일 오전 6시15분 북구 신안동에서는 목욕탕으로 향하던 80대 여성이 무단횡단 중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초와 중순에도 출·퇴근 시간대 무단횡단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들 사고는 대부분 왕

복 3~4차로 도로에서 발생해 보행자 안전 사고지대 문제가 지적된다.

운전자 과실이 주요 원인인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6시20분에는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23일 오전 5시48분에는 화물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또 25일 오후 2시55분에는 관광버스가 급제동한 승용차를 추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등 단순 부주의를 넘어 복합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단기간에 집중되자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 시 일시정지), 무단횡단 등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축축히 내리는 봄비 비가 내린 9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폭우·강풍으로 항공기·여객선 결항

무등산 등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피해 신고도

10일까지 최대 120mm의 폭우가 예보된 광주·전남 지역에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는 등 교통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되며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영양·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흑산면 제외)·진도 등에 강풍주의보가 발표됐다.

특히 흑산도와 흥도에는 강풍경보가 내려졌으며, 서해남부먼바다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서 해상 상황도 급

격히 악화됐다.

최대 순간풍속은 완도 신지 25.9%, 신안 흑산도 23.7%, 완도 청산 18.3%, 신안 가거도 17.4%, 거문도 16.0%, 광주 조산대 11.5% 등 강한 바람이 이어졌다.

기상 악화로 해상과 항공 교통도 큰 차질을 빚었다. 전남 지역 51개 항로 78척 가운데 18개 항로 22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광주~제주노선 항공기 7~8편과 여수발 김포~제주행 항공기 5편도 결항했다.

육상에서도 영향이 이어졌다. 지리산과 무등산, 내장산, 월출산, 다도해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는 전면 또는 부분 통제

됐다.

해경도 안전 관리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은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역을 중심으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기상 악화로 해안가 및 해상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다.

비로 인한 피해 신고는 오후 4시 기준 7건(광주 0건·전남 7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12시24분 광양시 광양읍 세동지리차도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은 장비 2대, 인력 7명을 투입해 배수 활동을 벌였다.

같은 날 오후 12시57분에는 영암군 서면 도갑리 한 도로에 넘어진 가로수가 넘어져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서 ‘보복 대항’ 범죄 9건 발생

돈을 받고 개인 간 원한을 대신 해결해 주는 이른바 ‘보복 대항’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보복대항 범죄는 광주 3건, 전남 6건 등 총 9건으로 집계됐다. 1건은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이중 올해 1월9일 전남경찰청이 구속한 A씨는 영광군 한 아파트 주거지 현관

에 인분 등이 섞은 오물을 뿌리고, 라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특정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대다수 피의자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보복 대항’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신원 불상의 지시 자료부터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테러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진 기자

일본 찾은 정신영 할머니...“사죄 없인 못 죽어”

미쓰비시중공업 첫 직접 방문...강제동원 책임 촉구 일본 시민단체와 ‘마루노우치 행동’·국회 집회 참여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인 정신영(96) 할머니가 일본을 직접 찾아 공식 사과의 배상을 요구했다.

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정 할머니는 일본 도쿄를 방문해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찾고, 현지 시민단체들과 함께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행동’에 참여했다. 이어 일본 국회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에도 참석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일정은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

원문제 해결과 과거청산 공동행동’과 피해자 지원단체인 ‘나고야소송지원회’ 등이 함께해 연대의 뜻을 보였다.

정 할머니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국내 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할머니는 1930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1944년 만 14세 때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먹여준다”는 말에

속아 나고야의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현실은 강제노동이었다. 군대식 통제 아래 하루 종일 페인트 작업을 해야 했고,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발생한 도난카미 대지진 등 또 다른 비극을 겪었다. 함께 끌려간 친구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B-29 폭격까지 이어지며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됐다.

광복 이후 귀국했지만, 정 할머니는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위안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때문이었다. 결혼 후에도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그



정신영 할머니는 9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찾고,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배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마루노우치 행동’에 참여했다.

는 2020년에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며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정 할머니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진으로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을 볼 수가 없다”며 “평생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99엔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이별통보 격분...연인 집 방화

이별통보 격분...연인 집 방화

마네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20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A씨는 지난해 5월17일 광주 북구 한 빌라 5층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A씨는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불은 빌라 주민에 의해 5분여만에 꺼졌으나, 또 5층 계단과 복도 일부가 타거다 그을렸다.

형소심 재판부는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범행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북구, 노후건축물 무상 점검 120곳 대상...15일까지 신청

광주 북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연면적 500㎡ 이하·2층 이하인 건축물 120여곳이다.

점검은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의 주도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방문해 건축물의 △기둥 △기둥 하부 △외벽 △옹벽 △배수구 △창호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우수부터 불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우기, 태풍, 동결기 등 취약 시기에 2차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임영진 기자